

“이젠 경찰에 고소장 접수 안해요, 靑 청원·언론 제보하죠”

시민들, 결정적 증거 없으면 미온적 수사 태도에 경찰 신뢰 잃어
학폭 피해 숨진 학생 유족 수사와 별개 靑 국민청원 글 올려
차량 스토킹 사건 언론 보도 나가자 적극 수사 움직임

“이제는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는 것 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언론에 제보하는 게 먼저예요.”

최근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거나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연관된 시민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기존에는 고소나 신고를 거쳐 경찰 수사를 통해 해결을 모색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먼저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경찰의 수사 태도가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사건보다는 대중

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사건에 적극적이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권 조정이후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 사건이 늘면서 경찰이 애매하거나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미온적인 수사 태도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A학생의 유족도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와 별개로 지난 7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다.

유족들에 따르면 애초 지난 7월 1일 새벽 2시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며 경찰을 방문, 아들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동영상 2개와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태블릿 PC에 남긴 유서 등을 직접 보여줬음에도 당시 경찰관은 “학교폭력 신고접수를 하고 싶다면, 지금 상태로는 부족하니 추가적인 학생들 증언을 가지고 와라”고 얘기했다.

유족들은 당시 경찰의 태도를 보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온전히 경찰 수사만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얘기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언론사에 제보도 했다.

유족은 “수사중이지만 최초 돌아가라고 했던 경찰에게만 아들의 억울함을 푸는데 기댈 수는 없어, 국민청원도 했고 언론사에 제보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유족들의 하소연은 13일이 지난 19일 현재 14만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유족들은 청와대가 직접 답하는 요건인 청원 동

의인 20만 명의 추천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부터 수백 km의 차량 스토킹을 당한 여성도 두려움에 경찰을 찾았지만, 경찰은 “범죄 안된다”며 돌려보냈다. 이후 피해자는 국내 최대 중고차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사연을 올리면서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결국 해당 남성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다른 여죄까지 밝혀져 구속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했던 광주시 북구의 한 병원에서 하위·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발한 의사 B씨 역시, “언론보도 나가고, 국민청원 올리니까 제대로 수사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최초 보험회사 관계자와 경찰을 찾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니 돌아가라고 하고, 성추행은 다른 곳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다”며 “하지만 이틀날 언론보도가 나오자 경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B씨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게시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국민청원으로 인해 또다시 수사 담당자가 적극성을 띄었다는 게 B씨의 얘기다.

일선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수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 부서에서 20여년 근무한 지역의 한 경찰관은 “경찰들도 사람이다 보니 사소한 사건은 피해자를 설득해 사건화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청와대 청원글과 국민신문고, 언론보도를 통해 담당하는 사건이 알려지면 부담을 느끼고 좀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기우식 참여자지21 사무처장은 “경찰은 언론에 해당 사례가 보도돼야만 움직일 때가 많다”며 “물론 경찰들도 수사에 대한 매뉴얼과 원칙이 있을 것이지만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때는 검토하고,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처리방식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집중 호우 민물 유입…진도 전복 251억원 어치 폐사

500mm 폭우에 폐사 규모 늘듯
군, 참모자반·새우 등 조사 확대

집중 호우로 민물이 바다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유입된 진도군에서도 전복이 대량 폐사해 2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저염분화로 추정되는 폐사 전복 피해 규모가 19일 현재 76어가 1만6000칸에서 1430만 마리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물연구원 남해수산연구소는 전복 폐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진도읍 전두·청룡·산월마을 어촌계를 방문해 폐사 원인을 규명하고 있고 전남도와 진도군도 어민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어민들은 “많은 비로 인한 바닷물의 저염분화로 폐사가 진행되는 전복의 경우 피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시간이 지날 수록 전체 폐사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장을 방문한 남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저염분이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폐사가 진행되는 만큼 양식장 예찰 등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도군은 집중 호우로 피해 조사를 전복, 참모자반, 새우, 넙치 등 수산물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여가당 최대 재난지원금 5000만원 외에도 가두리 피해어가 치패·중패 임시비 국비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하강 가능한 그물망 설치비 국비 지원을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학폭 극단 선택 고교 오늘 ‘학폭전담기구’ 심의 연다

학폭 주요 가해자 지목 3명

광주광산경찰, 집중수사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A군(광주일보 7월 5일 6면)이 다녔던 B고교에서 20일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가 열린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A군에 대한 또래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관련, 심의가 20일 B고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심의에는 학교장 등을 포함한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담기구는 이번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따라 B고교에서 처리할 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길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

다.

다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족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길 원하면 교육지원청으로 넘기 게 된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광산경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특정된 11명 중 3명을 주요 가해자로 지목, 집중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C(17)군 등 또래 학생 3명은 전수조사와 진술 대면조사에서 A군에 대한 폭행·상해·추행 횡수가 타 학생들에 견줘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주요 가해자로 지목됐다.

경찰은 가해자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한 뒤 주요 가해자 3명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강진서 버스-화물차 충돌

승객 등 42명 부상

강진에서 군내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4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19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강진군 성전면 강진교차로에서 성전면에서 강진읍으로 향하던 버스의 운전석 옆면을 강진산업단지에서 국도 2호선으로 가던 3.5t트럭이 들어받아 버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운전자와 승객을 포함한 41명과 트럭 운전자 1명 등 총 42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버스는 정원이 20명이지만 강진을 장날이라 지역민들이 무려 40명이나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게 경찰의 얘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초도 섬 내 시세 9억

-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오피스텔 매매 임대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8층, 계약 108㎡ 전용 67㎡
- ▶ 사무실 전용, 창가, 전망 좋음
- ▶ 매매 - 1억1000만원
- ▶ 임대 - 보 1000만원에 월 60만원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